

성구와 조어의 은유적 용법*

김경욱(한국외대)

1. 들어가는 말

신조어의 필요성은 반드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기존 단어의 의미가 새로운 의미로 다양하게 변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일상적으로 되어버린 은유어 Strom은 ‘흐르는 전기’의 의미로 사용된다. 새로운 의미는 기존의 의미가 상실되어 통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schildern*은 원래 ‘방패를 칠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그리다, 칠하다’, 그리고 마침내는 ‘기술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¹⁾ 이와 같이 은유는 기존의 단어에서도 생겨날 수도 있지만, 조어와 성구에서도 빈번하게 생겨나기 때문에, 조어와 성구에서 은유가 어떻게 발생하는 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를 이 논문에서 탐구해보고자 한다. “은유(metaphor)는 그리스어 동사 *metapherein*에서 왔으며, 어원상 *meta*(초월, over, beyond)와 *phora*(옮김, 전이 *carrying, transfer*)의 합성어로서 ‘의미론적 전이’란 뜻인데, 결국 *to speak about x in terms of y*가 되는 것이다. 즉 *x*를 *y*의 견지에서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인생은 연극이다 라는 문장은 인생을 연극의 입장에서 말한 은유인 것이다.”²⁾ 즉 여기에서 비유의 출발영역은 연극이 되고, 목표영역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출발영역과 목표영역을 밝혀 나간다면 은유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어와 성구는 공통적으로 은유화 과정을 통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 관용화 *Idiomatisierung*가 되므로, 원래의 의미와는 다른 성구적 의미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gesalzene Rechnung - Kopfbahnhof* (첫 구성요소의 관용화), *alter Hase - Kostenlawine*(둘째 구성요소의 관용화), *unbeschriebenes Blatt - Augenblick* (전체표현의 관용화).”³⁾ *gesalzene Speise*(‘너무 짠 음식’)에서 출발하여, *gesalzene*

* 본 연구논문은 2004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1) Wolfgang Fleischer(1975: 9f.) 참조.

2) 박영순(2000: 34).

3) Wolfgang Fleischer(1992: 62).

Rechnung(‘예기치 않게 높은 가격’)이라는 성구적 의미가 생겨났고, Kopfbahnhof는 머리에 혈액이 모두 모였다가 다시 전신으로 흘러나가는 모습에서 유추하여, ‘독일에서 열차가 여러 궤도로 들어왔다가 도로 나오는 역’을 뜻한다. alter Hase(‘늙은 토끼의 똑똑하고 교활한 점’)에서 출발하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성구적 의미가 생겨났다. Kostenlawine(‘비용의 눈사태’)를 토대로 하여, ‘비용급등’이라는 관용적 의미가 생겨났고, unbeschriebenes Blatt(‘백지’)에서 ‘신출내기’라는 새로운 관용적 의미가 파생하였고, Augenblick(‘한 번의 눈 깜빡거림’)이라는 원래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순간’이라는 새로운 관용적 의미가 생겨났다. 조어나 성구에서 원래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은유화의 과정을 거쳐 이렇게 관용적 의미 또는 성구적 의미가 파생되므로, 조어에서의 은유와 성구에서의 은유로 나누어 관찰하고, 특히 해석이 힘든 성구의 은유적 관계를 출발영역과 목표영역을 이용하여 분석하여보겠다.

2. 조어와 은유

월드컵이 점입가경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Express” 6월 13일짜의 “Der Ball ist rund.”라는 축구에 관한 칼럼의 한 제목은 “Waschküchen-Wetter macht unsere Jungs fertig”이다. 대한민국의 날씨가 얼마나 더웠으면 독일인 기자가 우리나라의 날씨를 ‘세탁장’에 비교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말 ‘썸통더위’가 연상되었다. 우리가 썸통과 더위를 서로 결합시키는 데 반해 독일인들은 Waschküche와 Wetter를 서로 결합시켜 조어를 만드는 것은 문화적 차이에서 연유된 것이다.

Von Christian Knop

(1) Seagwipo-Nebelschwaden hatten sich über das Paradies gelegt. Die
Urlauberinsel Jeju war gestern Mittag eine Waschküche.:

그러나 항상 이렇게 표현법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니고, 같을 때도 있다: 독일 사람들이 아주 더울 때 Mordshitze란 표현을 사용하듯이 우리도 살인적 더위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Waschküchen-Wetter와 Mordshitze는 Wetter와 Hitze를 Waschküche와 Mord에 영상적 비교 bildlicher Vergleich를 함으로써 생겨난 합성어로서 은유에 속한다. “은유에서는 사물관계에 토대를 둔 전이 Übertragung가 아니라, 유사관계 Ähnlichkeitszusammenhang에 토대를 둔 전이가 일어난다.”⁴⁾ Waschküchen(‘세탁장’)의 똑똑 찌는 무더위를 연상한 후에서야 비로소 Wetter(‘날씨’)와 관계를 지어 이해할 수 있다. “규정합성어 Determinativkomposita”인 Waschküchen-Wetter와 Mordshitze는 “규정어 Determinans 또는 Bestimmungswort”에 해당하는 Waschküchen과 Mords가 “영상기부체 Bildspender”가 되고, “피규정어 Determinatum”에 해당하는 Wetter와 Hitze는 “영상수취체 Bildempfänger”가 된다. 그러나 반대로 규정어가 영상수취체가 되고, 피규정어가 영상기부체로 되는 다음과 같은 합성어들도 있다. Beifallssturm, Informationsflut, Kostenlawine.⁵⁾ Rentnerschwemme.⁶⁾

이와는 달리 (2) Es kam vor, dass eine Wolke aussah wie eine Flöte.라는 문장은 하나의 “비교 Vergleich”를 포함하고 있다. 이 비교에서는 원래의 표현과 전의적/비유적 표현이 제시되고, wie, als ob, x gleicht y와 같은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명시적으로 서로 결부된다. 비교대상 x와 y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z라고 하자. 그 z가 바로 “비교의 제 3자 Tertium comparationis”라고 불리는 결합매개체 das Verbindende이다. 비교를 위해서는 비교요소인 x,y,z가 전부 언어적으로 실현되어야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은유에서는 이 기본구조가 구문적으로 축소되어, x, y, z가 다 제시되지 않는다.

- (3) Die Lehrerin hörte auf zu spielen. Peter legte sich ins Gras. Gerade über ihm zog eine Wolke, wenn man es nicht genau nahm, war es eine Flötenwolke.:

예문(3)의 Flötenwolke는 비교의 결과이다, 그러나 비교자체는 예문(2)에서

4) Kleine Enzyklopädie Deutsche Sprache(1983: 470).

5) Fleischer/Barz(1992: 99) 참조.

6) Harald Burger(1998: 49) 참조.

처럼 언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이것을 Waschküchen-Wetter에 한 번 적용해보면, Waschküche(‘찜통같이 더운 독일의 지하실 세탁장’)는 x, Wetter는 y(‘날씨’), x와 y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분모 z는 더위가 된다. 그것은 제목 바로 아래에 나오는 본문의 비교문 “x gleicht y”로 간주할 수 있는 Die Urlauberinsel Jeju war gestern Mittag eine Waschküche.를 분석해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장을 의미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Das Wetter der Urlauberinsel Jeju glich gestern Mittag einer Waschküche.’

그러므로 은유는 비교와 달리 독자의 “연상적 유희공간 assoziative Spielräume”⁷⁾을 자극한다는 차이가 있다. Waschküchen-Wetter 찜통더위는 ‘찜통같이 더운 독일의 지하실 세탁장이 연상되는 정도의 더위’라는 뜻이고, Mordshitze의 Mords가 ‘살인적 mörderisch’이란 의미에서 ‘아주 심한’이란 의미로 되는 과정이 은유화과정이고 우리의 연상능력을 요구한다. “축어(逐語)적 의미 wörtliche Bedeutung”와 “은유적의미/전의적 의미”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단어 Quelle를 포함하는 합성어 Informationsquelle를 가진 예문을 신문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4) Der Video-Text ist für Immo Bosse zur Informationsquelle Nummer eins geworden. (Frankfurter Rundschau, 25.07.1997, S.6, Ressort: N; TP Rosbach kommt mit Oliver Kesper):

예문(4)에서 Informationsquelle는 ‘정보의 출처’를 뜻한다. 그리고 Quelle der Unzufriedenheit는 ‘불만의 원인’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의적 의미는 원래의 의미 ‘샘, 원천’에서 은유화 과정을 통해 파생된 의미들이다. 즉 Quelle의 모든 용법에는 ‘개울의 원천’의 표상이 다른 객체에 전이된다. 다시 말해 die Quelle des Wasserlaufs가 영상기부체가 되고, der Ursprung der Information, die Ursache der Unzufriedenheit는 영상수취체가 되는 것이다. 한 텍스트에서 축어적 의미가 실현되는지 또는 전의적 의미가 실현되는 지는 문맥에 좌우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들은 이미 사전에 등재된 “어휘화된 단어-은유 lexikalisierte

7) Kleine Enzyklopädie(1983: 471).

Wort-Metaphern”이기 때문에 “전의적 Ü(bertragen)”이란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전에 등재되어있지는 않으나 작가에 의해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단어은유는 “새로운 단어-은유 neue Wort-Metapher”라고 부르며 반드시 “전의적 Ü”이란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 (5) “Gestöber: ‘heftiges Durcheinanderwirbeln von niedergehenden Schneeflocken’:
ins G. hinaustreten; Ü in dem G. von Gunst, das auf sie niedergeht(Werfel,
Bernadette)” (Duden GW):

예문(5)의 Gestöber란 단어는 원래 Schnee와 함께 쓰여 ‘눈의 흩날림’ 또는 ‘눈보라’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원래의 축어적 의미이지만, 여기에서는 추상명사인 Gunst 호의와 결부되어 사용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의적 용법을 만들게 되었다. 새로운 단어-은유는 강한 문체적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술, 학문, 정치적 시평에서 자주 이용된다.

3. 성구와 은유

성구에서는 조어에서보다 은유가 훨씬 더 자주 이용된다. 성구는 축어적 의미와 성구적의미로 이루어져 있는 데, 2장에서 언급된 영상기부체를 “출발영역 Ausgangsbereich 또는 Herkunftsbereich”, 영상수취체를 “목표영역 Zielbereich”이라고도 부르고, 그 두 영역사이의 관계를 “은유적 모델 metaphorisches Modell”이라고 한다. 출발영역 Wasser와 목표영역 Geld로써 우리는 각 영역에 한 명사와 그 명사에 대한 동사가 그 두 영역을 나타내는 문장들을 만들 수 있다 (의미적으로 기대되는 바와 같게 명사가 Geld 영역, 동사는 Wasser 영역을 대변한다):

- (6) Viel Kapital ist ins Ausland geflossen.

- (7) Das Spendengeld versickert in dunklen Kanälen.

훨씬 더 응축된 형태는 Geldquelle와 같은 합성어 안에 있는 은유적 모델이다.

Kapitalfluß, Geldregen usw..

그러나 모든 성구가 “관용적 의미 idiomatische Bedeutung”를 갖고 있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sich die Zähne putzen은 성구적 의미와 축어적 의미 사이에 아무런 의미상의 차이가 없는 “비관용적 nicht-idiomatisch”이다. 그에 반해 Öl ins Feuer gießen의 축어적 의미와 ‘einen Streit noch verschärfen’이라는 성구적 의미사이에는 언어체계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독자의 연상작용에서 어떤 인지적 개념을 불러일으켜 축어적 의미의 “은유화 과정 Metaphorisierung”이 생겨나므로, 구조적·의미적 관점에서 이 표현은 “관용적 idiomatisch”이다. 이와 같이 “은유화 과정”과 “관용적”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구 einen Streit vom Zaun brechen에서 vom Zaun brechen은 관용적이지만, einen Streit는 원래의 축어적 의미를 계속 지니고 있으므로 “부분-관용적 teil-idiomatisch”이라고 볼 수 있다. blinder Passagier와 Geld fließt 또한 여기에 속하니, blinder와 fließt는 관용적 의미 또는 은유적 의미로 사용된 반면, Passagier와 Geld는 자유로운 의미 freie Bedeutung 또는 축어적 의미로 사용되었다.⁸⁾

“어휘화된 은유적 단어결합, 즉 은유적 관용구 metaphorisches Idiom라고 불리는 an der Quelle sitzen에서 ‘gute Verbindung zu jmdm. haben und daher zu besonders günstigen Bedingungen in den Besitz von etw. gelangen’이라는 성구적 의미는 ‘샘가에 앉아 있다’라는 축어적 의미에서 파생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⁹⁾

축어적 의미와 성구적 의미 사이에 은유적 전의관계가 성립하는 또 다른 예를 소개하면 das fünfte Rad am Wagen (sein)이다. 자동차에 바퀴가 4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자동차의 5번째 바퀴’라는 “축어적 의미”를 통해 ‘한 단체에서 불필요한(Duden 11)이라는 성구적 의미를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8) Harald Burger(1998: S. 32f.와 S. 85) 참조.

9) Ebd. S. 83.

“격언적 성구 sprichwortartiger Phraseologismus”인 Zeit ist Geld의 예를 들면, 영어 time is money의 “차용번역 Lehnübersetzung”으로서, 출발영역 Geld를 목표영역Zeit에 전이/ 투영 Projektion시킨 은유화 과정의 산물이다¹⁰⁾: “돈이 불충분한 자원이라면, 그리고 불충분한 자원이 가치가 크다면, 시간 또한 불충분한 자원으로서는 가치가 크다. 즉: 시간은 돈이다.”¹¹⁾

4. 성구의 은유적 관계분석

은유적 전의관계가 있는 성구의 예문들을 조사하여, “출발 영역”과 “목표영역”을 밝혀 “은유화 과정”을 눈에 보이도록 그려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원전자료 Korpus로는 살아있는 독일어를 느낄 수 있고, 시사적인 내용과 더불어 많은 성구를 갖고 있는 “Spiegel Online- 30. August 2002, Die Krise der Mittzwanziger”를 이용하겠다.

jung, erfolgreich, kreuzunglücklich

Die Krise der Mittzwanziger

von Sabine Hoffmann

Sie sind Mitte Zwanzig, haben den Studienabschluss in der Tasche - und befinden sich in einer tiefen Lebenskrise. Die hat auch schon ein modisches Etikett: “Quarterlife Crisis” heißt die neue Trendkrankheit, die der Post-Dotcom-Generation mächtig zu schaffen macht.

Daisy hat Angst. Unsicher und verwirrt fühlt sie sich - und fragt sich täglich: Was soll nur aus mir werden? Dabei klingt ihr Lebenslauf nach Erfolg: Mit 23 Jahren hat Daisy ihr Soziologie-Studium beinahe in der Tasche. Ein Schein fehlt ihr noch, dann könnte sie voll ins Berufsleben durchstarten. Doch bislang kassierte sie auf Bewerbungsschreiben nur Absagen. Nun befürchtet sie, nie den richtigen

10) Ebd. S. 83ff. 참조.

11) Bernhard Debatin(1995: 244).

Job zu finden.

Mutlos Mitte Zwanzig? Diskutieren Sie mit anderen Spiegel-Online-Usern!

“Ich kann mich einfach nicht für einen Beruf entscheiden”, klagt Daisy im Cyberspace. Im Forum der Website quarterlifecrisis.com chattet sie mit Grumpy, ValentineGirl und M4A1. Alle sind Mittzwanziger, die Daisys Probleme kennen und ihr tröstende E-Mails schicken: Du bist nicht allein, uns geht es genauso - das sind Symptome der Quarterlife Crisis (QLC).

Zwischen Leichtsinn und Schwermut

Bislang kannte man nur die Midlife Crisis: alternde Männer mit grau meliertem Haar, die den trüben Alltag satt haben und es noch einmal richtig

krachen lassen wollen. Mit einer blutjungen langbeinigen Gespielin im Arm mimen sie den wilden Mann - düsen im Porsche durch Berlin-Mitte oder München-Schwabing, schlürfen Martini und feiern in Szene-Clubs bis in die frühen Morgenstunden.

Doch die Midlife Crisis ist Schnee von Gestern. Abby Wilner und Alexandra Robbins haben ein neues Phänomen entdeckt - die Sinnkrise nach dem ersten Lebensviertel. Und weil jede Trendkrankheit auch einen poppigen Namen braucht, taufte sie die Depression der Mittzwanziger flugs Quarterlife Crisis. Bis es aber so weit kommen konnte, mussten die beiden jungen Frauen einiges erdulden. Schließlich zählten sie zu den ersten Opfern der Quarterlife Crisis.

Irgendwann hatten Robbins, 26, Journalistin, und Wilner, 27, Webdesignerin, ihre Jobs satt. Beide waren beruflich erfolgreich, doch der Büroalltag nervte sie. Auf Partys fragten sie Freunde und Bekannte: Fühlst du dich auch leer und orientierungslos? Und stellten fest: Die Post-Dotcom-Generation steckt mitten in der Identitätskrise.

Frank, der 23-jährige Workaholic

Mutierte der Mittvierziger noch zum Lebemann, weil er das traute Heim mit liebevoller Ehefrau plötzlich staubig und speckig fand, sehen die Seelenqualen der

Mittzwanziger ganz anders aus: Zu wenig Sicherheit und Stabilität im Leben und eine ungewisse Zukunft lösten starke Selbstzweifel aus, sagte Robbins gegenüber der "New York Times".

Rund 200 Twentysomethings interviewten die beiden Frauen, werteten ihre Ergebnisse aus und verfassten ein Buch mit dem Titel "Quarterlife Crisis". Das avancierte in den USA im vergangenen Jahr zum Bestseller und schaffte es sogar in die TV-Show von Talk-Queen Oprah Winfrey. Tausende junger Leute sprachen offen über den Druck, immer alles richtig zu machen - Job und Karriere, Familie, Freunde und Beziehung unter einen Hut zu bringen. Denn bei der Quarterlife Crisis schmerzt nicht der Körper, sondern die Seele. Betroffene leiden, weil sie zu früh zu erfolgreich waren und nun in materiellem Überfluß leben.

Im Buch beschreiben die Autorinnen zum Beispiel Frank, der sich im Alter von 23 Jahren zwei Ziele gesetzt hatte: Nach dem Studium an der US-Eliteuniversität Berkeley wollte er der jüngste Finanzmanager in der kalifornischen Automobilbranche werden und jährlich 100.000 US-Dollar verdienen. Gut drei Jahre später hatte er seine Pläne verwirklicht - und sah keine Perspektiven mehr. Er hängte den Job an den Nagel, kramte sein Hab und Gut zusammen und reiste zwölf Monate durch die Welt.

Das Leben ist schön. Und voller Probleme

Sind die krisengeschüttelten Youngster nur weinerlich und gönnen sich ein Luxusproblem, weil sie keine echten haben? Christiane Papastefanou sieht das anders. Nicht nur die Amerikaner drehen in den Zwanzigern durch, hat die Mannheimer Psychologin beobachtet. Auch in Deutschland sei die Krise nach dem ersten Lebensviertel als psychologisches Phänomen seit etwa zehn Jahren bekannt, sagte sie gegenüber UniSpiegel ONLINE. Junge Menschen, deren Leben eigentlich auf beruflichen Erfolg programmiert ist, sind besonders anfällige QLC-Kandidaten - frisch gebackene Hochschulabsolventen und Berufseinsteiger.

Eine 24-Jährige schreibt im deutschen-Quarterlife-Crisis-Forum, dass ihr Leben eigentlich schön sei: Vor kurzem sei sie mit ihrem Freund zusammengezogen, die Beziehung laufe gut, auch mit den Eltern verstehe sie sich prima und schaffe das

Studium nahezu problemlos. Trotzdem fühle sie sich innerlich zerrissen. Ständig müsse sie Entscheidungen treffen: Soll ich ein Semester länger studieren, um meine Noten zu verbessern? Wäre es nicht besser, vom Freund räumlich getrennt zu leben? Sollte sie nicht doch wieder zu ihren Eltern ziehen? Sie sei doch erwachsen, 24 Jahre alt. Richtig glauben könne sie das aber nicht.

Solche Fälle kennt Psychologin Papastefanou nur zu gut. Immer wieder kommen *junge Leute in ihre Praxis und sagen: Ich habe Angst vor der Zukunft, sehe keine Perspektiven*. Die Krise sei kein individuelles Problem der Betroffenen, sondern hänge mit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zusammen. Die Wertvorstellungen hätten sich im Laufe der Zeit gewandelt, zugleich seien junge Menschen orientierungslos geworden.

Jahrelang sei ihnen vorgegaukelt worden: Du kannst alles machen, was Du willst. Doch keiner frage: Was willst Du eigentlich wirklich? Architektur studieren oder BWL - Häuser entwerfen, Bilanzen studieren oder Kredite vergeben? Die Mittzwanziger hätten zu viele Optionen und könnten sich nicht mehr entscheiden, so Papastefanou. Oftmals werde das Studienfach mehrfach gewechselt: von Jura auf Germanistik, von Medizin auf Volkswirtschaft.

Der Blues nach dem Studium

Gehe die Ausbildung zu Ende, löse das bei vielen jungen Leuten einen Realitätsschock aus: Das Studium sei eine Schonzeit mit wenig Zwängen, so die Expertin. Jetzt geht es aber richtig zur Sache. Die jungen Leute müssten einen Job finden - am besten gleich den richtigen. Wollte die Eltern-Generation nur möglichst schnell auf eigenen Beinen stehen, seien die heutigen Twens bei der Berufswahl viel anspruchsvoller geworden, so Papastefanou. Der Job soll nicht nur ordentlich Geld bringen, sondern auch Spaß machen.

Auch im Privatleben habe sich bei den Twens Leere breit gemacht, sagt Christiane Papastefanou. Denn schon in jungen Jahren hätten die Eltern ihnen fast nichts mehr verboten. Mit Mitte Zwanzig hätten sie bereits die fünfte Love-Parade mitgemacht und fragten sich nun: Was soll das alles - und wo ist der Kick?

Eine konkrete Lösung hat die Psychologin aber nicht. Auch das Buch hält kein

Patentrezept gegen die Quarterlife Crisis bereit. Doch Abhilfe ist in Sicht: In verschiedenen amerikanischen Städten gibt es bereits Workshops und Seminare für krisengeschüttelte Mittzwanziger.

다음 12개의 성구의 은유적 의미를 분석하겠다.

(1) Sie haben den Studienabschluss in der Tasche ; Mit 23 Jahren hat Daisy ihr Soziologie-Studium beinahe in der Tasche::

“etwas (schon) in der Tasche haben (ugs.): etwas mit Sicherheit bekommen werden; etwas schon haben: Er hat bei uns noch den armen Arbeitslosen gespielt, als er den Vertrag schon längst in der Tasche hatte. Bevor ich noch sagen konnte, sie möge es sich in aller Ruhe überlegen,--- hatte ich ihre definitive Zusage in der Tasche. Wenn wir in einer Mannschaft spielten, hatten wir den Sieg so gut wie in der Tasche.”(Duden 11)

무엇을 호주머니 안에 이미 갖고 있다 에서 출발영역은 ‘호주머니 안’이고, 목표영역은 ‘어떤 행위의 완료’이다. 호주머니 안에 있으면, 자신의 소유가 확실히 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4격 동사보조어 자리에 오는 명사의 의미부류가 축어적 의미일 때에는 ‘Geld, Sache’이었으나, 성구적 의미일 때에는 ‘Vertrag, Sieg, Zusage, Studium, Studienabschluss 등의 행위동사’로 바뀌어 어떤 행위의 완료를 뜻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er hat den Vertrag längst in der Tasche는 ‘er hat den Vertrag bereits erfolgreich abgeschlossen’을 뜻한다.

(2) Doch bislang kassierte sie auf Bewerbungsschreiben nur Absagen:

kassieren은 축어적 의미일 때에는: “1.a)(einen zur Zahlung fälligen Beitrag) einziehen: die Miete kassieren; 2.(ugs.) a) einnehmen: hohe Prämien, Zinsen, ein ansehnliches Honorar kassieren; (Ü) Lob, Anerkennung kassieren;

b) (etw. Unangenehmes) hinnehmen müssen: Strafpunkte, ein Tor kassieren; während einer Prügelei einen Schlag, ein blaues Auge kassieren; unsere

Mannschaft kassierte eine Niederlage; Kritik kassieren“(DUW)

kassieren 은 “다의어 polysem”이고, 서로 관계가 있는 일련의 의미소들을 갖고 있다. 1.a)의 의미가 “축어적 의미”이고, 다른 의미들은 “전의적 의미”이다. 즉 “출발의미 Ausgangsbedeutung” 1.a)에서 은유화 과정을 통해 다른 의미들이 파생된다. die Miete kassieren에서 Prämien, Zinsen, Honorar kassieren과 Lob, Anerkennung(etwas Angenehmes) kassieren과 eine Niederlage, Kritik kassieren으로 까지 발전한다. 출발의미는 역사적이 아니고, 공시적인 뜻에서이다. 오늘날의 독일어화자는 언제나 전의적 의미들이 어떤 출발의미에서 파생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전의가 진행되는 길은 구체적 의미소에서 추상적 의미소로 진행된다. kassieren의 어떤 의미소¹²⁾가 실현되는지는 어휘적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 그리고 Absagen kassieren은 이미 “어휘화된 단어-은유”이지만, Lob, Anerkennung kassieren은 (Ü)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새 단어-은유 neue Wort-Metapher”이다.¹³⁾ 1.a)의 축어적 의미와 2.a)와 2.b)의 “어휘화된 단어-은유”와 (Ü)의 “새 단어-은유”로 이루어진 성구적 의미 또한 4격명사보족어 자리에 오는 명사들의 의미부류가 다르므로, 즉 의미적 동사가가 서로 다르므로 구별될 수 있다. 여기에서 출발영역은 ‘Miete’이고, 목표영역은 ‘Prämien, Zinsen, Honorar’와 ‘Lob, Anerkennung(etwas Angenehmes)’와 ‘ein Tor, einen Schlag, ein blaues Auge, eine Niederlage, Kritik, Absagen(=etwas Unangenehmes)’으로 다양하다.

(3) alternde Männer haben den trüben Alltag satt und wollen es noch einmal richtig krachen lassen: ‘des trüben Alltags überdrüssig werden und etwas Außergewöhnliches oder Sensationelles machen’.

Irgendwann hatten Robbins, 26, Journalistin, und Wilner, 27, Webdesignerin, ihre Jobs satt: ‘ihrer Jobs überdrüssig werden’:

Ich habe dieses Essen satt는 ‘나는 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싫증이 났다’를 뜻하였으나, 은유화과정을 통해 성구적의미가 된 후에는 4격동사보족어의

12) 김경옥(2001, 독어교육 제 21집, 119) 참조.

13) Harald Burger(1998: 82f.) 참조.

의미부류가 ‘음식물’이 아닌 ‘싫증나는 행위 또는 대상’으로 바뀌었다. “etwas satt haben/sein(ugs.): einer Sache überdrüssig sein, etwas leid sein: Sie war die ewigen Nörgeleien des Chefs satt und reichte ihre Kündigung ein. Vater ... hatte es satt, andauernd Holzwohle in tote Tiere zu tun und dafür bloß einsfüfundachtzig zu kriegen.(Duden 11)

es는 “문법적 목적어 es”¹⁴⁾로서 특별한 의미가 없는 성구의 일부이다. 즉 es krachen lassen은 성탄전야와 같은 축제일에 ‘폭죽을 터뜨리다’를 연상시키고, ‘인간의 열정의 폭발’을 암시한다. 즉 출발영역은 ‘폭죽’이고, 목표영역은 ‘인간의 정열의 폭발’이다.

(4) Doch die Midlife Crisis ist Schnee von Gestern:

어제의 눈은 오늘 내린 눈과는 다르게, 이미 녹아버리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여 참신한 매력은 이미 잃어버린 상태이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Duden 11)이란 성구적의미를 갖게 되었다. 출발영역이 ‘어제의 눈’이고, 목표영역이 ‘중년의 위기 die Midlife Crisis’이다. 즉 중년의 위기는 더 이상 현실성이 있는 중요한 테마가 아니고, ‘25세의 위기 die Quarterlife Crisis’가 현재의 중요한 테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5) weil er das traute Heim mit liebevoller Ehefrau plötzlich staubig und speckig fand:

staubig und speckig는 오래된 가구 등이 먼지가 쌓이고, 기름때가 낀 것을 나타내며, ‘생동감과 변화가 없는, 지루하고 늘 똑 같은 일상생활’을 뜻한다. speckige Leder는 ‘abgenutzte Leder’를 뜻하며, 그것은 ‘소와 등의 가죽이 오래 되어 닳고 기름때가 끼어 반들거리는 것’을 뜻한다.¹⁵⁾ 즉 이것은 변화없는 일상적 삶의 지루함을 상징하고 있다. 출발영역이 ‘가구’이고, 목표영역이 ‘인생’이다.

14) 김경옥(1990: 문법적 기능에 따른 ES의 분류. 20f.) 참조.

15) Dr. Holmer Brochlos와의 개인적 대화에서.

(6) Job und Karriere, Familie, Freunde und Beziehung unter einen Hut zu bringen:

우선 Beziehung은 ‘Liebesbeziehung’, 즉 ‘애인’을 뜻한다.¹⁶⁾ 이런 현상을 “환유(Metonymie)”라고 부르며, 은유에서는 원래의 의미에서 그 영역과 아무런 실제적 관계가 없는 새 영역으로의 의미전이가 일어나는 것과는 달리, 환유에서는 출발점과 실제적 관계, 즉 원인과 결과, 소유주와 소유등의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kluger Kopf는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을 뜻하며 환유이다.¹⁷⁾

“jmdn.,etwas unter einen Hut bringen(ugs.): in Übereinstimmung, in Einklang bringen *Die Wendung drückt bildhaft die Zusammenfassung vieler Köpfe mit ihren verschiedenen Ansichten aus.”(Duden 11)

출발영역은 ‘한 개의 모자’이고, 목표영역은 ‘조화 또는 일치’이다.

(7) Er sah keine Perspektiven mehr:

Perspektive는 “1. 원근법 2. (교양어) 관점 3.a) (교양어) 미래에 대한 가능성”(DUW)라는 의미소들을 갖고 있으며, 원래의 축어적 의미는 ‘원근법’이고, ‘관점’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은 전의적 의미로서 (Ü)의 표시없이 사전에 등재되어있으므로, ‘어휘화된 단어-은유’이다.

(8) Er hängte den Job an den Nagel:

“etwas an den Nagel hängen (ugs.): etwas aufgeben, etwas künftig nicht mehr machen: Damals hatte er sein Studium an den Nagel gehängt Trotzdem: Sie denkt nicht daran, ihre Karriere mit Rücksicht auf das Kind an den Nagel zu hängen. Ich habe den Assessor an den Nagel gehängt....*Diese Wendung geht wohl darauf zurück, daß man früher sein Arbeitsgerät, seine Dienstkleidung o.ä. in einer Baubude, Baracke oder Unterkunft ordentlich an einen Nagel aufhängte, wenn man eine Arbeit oder die Ausübung eines Berufes beendete”(Duden 11)

16) Dr. Holmer Brochlos와의 개인적 대화에서.

17) Harald Burger(1998: 81) 참조.

sein Arbeitsgerät oder seine Dienstkleidung an einen Nagel hängen → den Job oder sein Studium an einen Nagel hängen으로 동사 *hängen*의 4격동사보족어의 의미부류가 ‘일을 위한 도구나 옷’에서 ‘직업으로서의 일’로 바뀌었다. 즉 의미적 동사가 서로 다르므로, 성구적의미가 은유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동사의 의미에 의한 동사보족어로 오는 명사의 의미적 선택제약이 준수되지 않았을 때에 은유라는 문체가 등장하게 된다.¹⁸⁾ 그리고 전자가 출발영역이고, 후자가 목표영역이 되겠다.

(9) frisch gebackene Hochschulabsolventen und Berufseinsteiger:

“frisch gebackenes Brot 갓 구운 빵; (전의)ein frisch gebackenes Ehepaar 갓 결혼한 부부”(모델독한사전); “frisch gebacken (Adj); nicht adv; 1. 이제 갓 구운 <ein Brot, ein Kuchen> 2. gespr hum; 이제 갓 무엇이 된: ein frisch gebackener Arzt, Ehemann” (Duden, 10 Bände) 예문들을 비교해보면 출발 영역이 ‘빵’이고 목표영역이 ‘공부를 막 끝낸 학위취득자 와 갓 결혼한 부부 또는 신참직장인’이다. 모델독한사전에는 (전의)란 표시가 있으므로 아직 어휘화되지 않은 ‘새 단어-은유’로 간주하지만, (Duden, 10 Bände)에는 ‘어휘화된 단어-은유’로 인정되어 “전의적 Ü”의 표시가 없다.

(10) Das Studium sei eine Schonzeit mit wenig Zwängen:

“Schonzeit (사냥): 짐승이 새끼를 낳았을 때, 보호하기위해 정해진 년중 일정한 기간의 사냥금지기간”(DUW)이 원래의 의미라면,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은 별다른 의무가 특별히 부가되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므로 ‘자유가 허용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사냥금지기간’이란 원래의 의미에 대해 성구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출발영역이 ‘사냥’이고, 목표영역은 ‘자유로운 대학생활기간’이다.

18) 김경옥(1990: 독일어 Valenz문법. 62f.) 참조.

(11) Wollte die Eltern-Generation nur möglichst schnell auf eigenen Beinen stehen:

auf eigenen Beinen stehen의 원래의 의미는 ‘자신의 힘만으로 서다’이지만 성구적 의미는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다’이다. 출발영역이 ‘자기혼자만의 힘’이라면, 목표영역은 ‘독립된 생활영위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

(12) und wo ist der Kick?:

Kick der -[s], -s [engl. kick, zu: to kick=stoßen, treten] 1. (Fußball Jargon) Tritt, Stoß mit dem Fuß: der Torhüter klärte mit einem Kick 2. a) (salopp) Nervenkitzel, Vergnügen, Erregung: Horrorfilme verschaffen ihm einen Kick; b) durch Drogen hervorgerufener euphorieähnlicher Zustand: Shit, also Haschisch, und Trips gaben nicht mehr den richtigen Kick(Duden, 10Bände)

1.의 ‘발로 차기’가 ‘축어적 의미’이고, 2.a)의 ‘신경의 간질임, 만족, 자극’과 2.b)의 ‘마약등에 의한 도취상태’는 성구적 의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2. b)의 의미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Kick은 이미 ‘어휘화된 단어-은유’로서, 출발영역이 ‘축구’이고, 목표영역은 ‘오락, 알콜과 마약 등의 유흥생활’이다.

5. 맺는 말

우리는 성구의 은유적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출발영역과 목표영역의 분석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용적 idiomatisch이란 원래 은유화과정 Metaphorisierung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전의적 Übertragen 의미란 은유적 의미를 뜻하고, 성구적 의미란 원래의 축어적 의미 밖의 모든 은유적 의미, 즉 모든 “어휘화된 단어-은유”와 “새 단어-은유”를 포함한다. 한 개의 축어적 의미에서 원래 출발하였지만, 문맥에 의해 여러 가지 의미적 변이체의 실현가능성이 있음을 예문(4)의 Informationsquelle와 분석예문 (2)의 Absagen

kassieren 등에서 볼 수 있었다. 즉 ‘어휘화된 단어-은유’와 ‘새 단어-은유’라는 성구적 의미와 축어적 의미중의 어떤 의미가 실현되는 지는 의미적동사가의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frisch gebackenes Brot는 축어적 의미이지만 frisch gebackener Doktor로, Brot가 Doktor로 바뀌면, 은유적(성구적) 의미로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구적 의미가 ‘어휘화된 단어-은유’인지, ‘새 단어-은유’인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으로 되므로 사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새로운 은유가 작가들에 의해 항상 고안되는 사실은 문체적 효과의 극대화와 관련이 있다.

참고문헌

1) Quellentexte

모델독한사전 (1995): 서울:삼화.

DUW (1989): Duden. Deutsches Universalwörterbuch. Mannheim.

Duden GW (1993-1995): Duden. 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in 8 Bänden. Mannheim.

Duden 11 (1992): Duden. Redewendungen und sprichwörtliche Redensarten. Wörterbuch der deutschen Idiomatik.

Duden 10 Bände (2000): Duden. 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10 Bände auf CD-ROM. Mannheim.

2) Wissenschaftliche Literatur

김경옥 (1990): “독일어 Valenz 문법”. 서울: 청록

김경옥 (1990): “문법적 기능에 따른 ES의 분류”. In: 한국외국어대학교논문집.

김경옥 (2001): “의미적 동사가와 동사의미소의 구분”. In: 독어교육 21집.

박영순 (2000): “한국어은유연구”. 서울.

Burger Harald (1998): Phraseologie. Eine Einführung am Beispiel des Deutschen. Berlin.

Debatin Bernhard (1995): Die Rationalität der Metapher - eine sprachphilosophische und kommunikationstheoretische Untersuchung. Berlin.

- Fleischer Wolfgang (1975): Wortbildung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Tübingen.
- Fleischer Wolfgang (1992): Konvergenz und Divergenz von Wortbildung und Phraseologisierung. In: Phraseologie und Wortbildung - Aspekte der Lexikonerweiterung. Finnisch-deutsche sprachwissenschaftliche Konferenz, 5.-6. Dezember 1990 in Berlin. Hrsg. von Jarmo Korhonen. Tübingen.
- Fleischer Wolfgang/Barz Imhild (1992): Wortbildung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Tübingen.
- Fleischer Wolfgang (1997): Phraseologie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2., durchgesehene und ergänzte Auflage. Tübingen.
- Kleine Enzyklopädie (1983): Deutsche Sprache. herausgegeben von Wolfgang Fleischer, Wolf Dietrich Hartung, Joachim Schildt, Peter Suchsland. Leipzig.

Zusammenfassung

Wortbildung, Phraseologie und Metapher

Kim, Gyung-Uk(HUFS)

Wir benutzen den Ausgangsbereich und Zielbereich, um den Prozeß der Metaphorisierung zu erklären. Die Bedeutungen eines Wortes besteht aus einer wörtlichen Bedeutung und verschiedenen phraseologischen Bedeutungen, die wieder aus lexikalisierten Wort-Metaphern und neuen Wort-Metaphern bestehen. Welche Bedeutung davon realisiert wird, hängt von der lexikalischen Umgebung des Textes, nämlich von der semantischen Valenz des Verbs ab. Wenn man das Verb backen auf Brot bezieht, bleibt das noch eine wörtliche Bedeutung, während dasselbe Verb, wenn man es auf Doktor, Ehepaar oder Berufseinsteiger bezieht, zu einer metaphorischen und phraseologischen Bedeutung wird. Eine metaphorische (=phraseologische) Bedeutung wird bei allen untersuchten Beispielen durch die verschiedene semantische Valenz von der wörtlichen Bedeutung und auch von anderen phraseologischen Bedeutungen unterschieden. Es ist auch möglich, dass jeder eine Phraseologie anders einschätzt, zum Beispiel einer könnte frisch gebackener Doktor zu lexikalisierten Wort-Metaphern rechnen, während ein anderer denselben Ausdruck zu neuen Wort-Metaphern mit (Ü) rechnen würde.

Neue Metaphern werden immer wieder erfunden von Autoren, um die poetische

Ausdruckskraft zu erhöhen, denn veraltete Metaphern haben nicht mehr solch einen starken Effekt wie eine frisch erfundene neue Metapher.

[검색어] 성구, 조어, 은유, 축어적 의미, 성구적 의미
Phrasaologie, Wortbildung, Metapher, wörtliche Bedeutung, phraseologische Bedeutung

김경옥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한국외국어대학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kgu47@hufs.ac.kr